

第 I 章 序 章

第 1 節 問題의 提起

第 1 項 現代建築과 傳統

오늘날의 「現代建築」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近代建築을 지배하고 있던 「그로피우스」의 「테제」가 선진국의 지도권下에 약소국의 지배와 독립적 주권의 말살 및 피압박민족문화의 파괴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武器로 化했다는 이유로 1차대전 후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건축을 위기라고 보는 것은 건축의 구성을 外面的이고 形式的인 規節에서 파악하려는 태도에서 起因되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건축활동을 內的要素에 눈을 돌리면 創造的인 건축이 현대건축에 이르러 시작됨을 알게 된다.

內的인 要素란 現代건축의 「에너지」-機械·民衆·民族-를 말한다. 이러한 技術의 進歩, 民衆의 勃興과 民族主義(傳統의 意義)를 의식하고 그것을 건축에 표현할때 現代建築은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現代建築의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韓國의 개항이후의 近代建築은 內然的 전개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받아들여진 外向的인 성격을 지녔다.

이 外向的 建築樣式의 導入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體得된 것이 아니고 日帝의 前近代的 建築樣式에 의하여 理解되고 파악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서있는 우리의 현대건축과 그것의 창조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의한 傳統의 계승을 더욱 踏實하게 하고 있다.

1930年代 이후 韓國人 建築家가 몇몇 활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수는 미약하였고 또한 제한된 訓練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解放 後에도 역시 價值 판단의 평가 기준조차 잡지를 못 잡는 사이에 援助文化的 「러쉬」 속에서 우리의 건축은 方向 감각을 잃고 말았다.

새로운 건축의 창조는 건축에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 그것을 만족시키는 生産技術의 進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건축의 창조는 그러한 生産上 使用上의 要求나 조건을 될 수 있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그 해결 방법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과거의 경험을 利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傳統의 創造的 繼承이 提起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進歩와 傳統의 함수는 상호 반목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進歩의 관념은 늘 傳統을 비판적이고 부

정적으로 대하여 왔다. 그러나 참다운 傳統의 繼承의 發展이란 스스로를 否定하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構築하는 데에서 소생한다.

이렇게 方向 감각을 잃고 헤메는 韓國의 現代建築에 주체적인 方向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要求에 附應하는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기 위해서 傳統의 계승 발전이란 踏實하게 되었다.

傳統을 形式에서 얻으려 하고 심지어 遺産의 再生을 피하며, 復古主義의 態度에서 韓國의 것을 韓國 스타일로 얽치 않는 解釈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外國 관광객의 異國 趣味에 맞는 새로운 골동품을 만들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事大思想과 같은 것이다. 一世를 풍비하던 건축史家조차 傳統건축을 文化財의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구에 유행했던 짜뽕니가의 정신과 日本의 精神이 無關係이듯 八相殿의 美를 發見한 유럽의 근대 정신과 한국의 정신은 관계가 없었다.

朝鮮末의 韓國人中 八相殿이 名建築이라는 것을 自覺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일반적인 추세도 아니었다. 自覺에 의해서 발견되

어 지지않는 韓國美는 진정한 民族정신을 대변하는 韓國美라고는 말할수 없다.

이렇게 傳統의 再確認과 그것을 繼承 發展시키려는 姿勢는 韓國 뿐만이 아니고, 오랜 文化를 가진 國家는 모두 苦鬪하고 있다 이러한 옛 文化를 保存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模造品을 現代에 再生시키는 것은 「년센스」이다.

傳統의 創造란 단순히 樣式이나 形態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건축가가 傳統을 자신의 내부에서 소화시켜, 그것을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내놓은 것이다. 그것은 傳統의 形態에 대해서 否定하고 抵抗할 수도 있다. 作家가 자신의 내부에서 傳統을 느끼고, 그것에 否定的인 태도를 취했을 때, 創造의 「에너지」는 高揚되고, 이것을 통해서 傳統은 發展의 繼承을 한다. 이것은 幾何學的인 形態에 의해서 解答을 얻는 것이 아니고, 民族의 傳統의 형태의 類感에 의해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現代建築에 새로히 대두된 과제 - 民衆의 새로운 中心像 - 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건축가의 내부에 中世 백성의 中心像이었던 傳統樣式 이 떠 오르고, 이것으로 現代建築의 과제를 여는 실마리를 찾았다면, 이것은 과거건축으로써가 아니고, 民衆에 膾炙되고 이해되는 民衆의 새로운 中心像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물론 視覺의으로도 民衆의 정신에 부합될 것인데 이렇게 이룩된 조형을 전통의 繼承發展이 되었다고 말 할수 있다.

전통의 繼承은 傳統樣式的 斷片을 近代建築의 일부에 부착시키거나, 斷片들을 감각적으로

현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中世 百姓의 中心이었던 傳統樣式의 바탕이 되는 정신을 이해하고, 이 정신의 변천적 발전인 現代精神 위에 民衆의 상징으로서 民族의 새로운 中心像을 창조하려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傳統樣式의 바탕이 되는 精神 - 建築思想 -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때문에 本 論文은 建築思想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第 2 項 傳統思想과 實學思想

實學思想은 傳統思想 가운데 가장 近代와 가까우면서도 우리 민족의 主體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近代指向의 몸부림이었다.

근대화라는 것이 傳統思想과는 전혀 다른 土壤에서 잉태한 西洋文明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傳統思想에서 싹튼 實學思想이 近代化의 추진적 역할을 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과거의 傳統文明과는 전혀 별개의 세계에서 성장해 온 서양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 傳統思想 가운데서 이 新來의 사상에 가장 유사한 요소를 찾아 그것을 媒介로 스스로를 깨치고 남에게 설명하며 「東道西器」와 같이 전통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섭취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것에 가장 부합되는 전통적 요소가 實事求是에서 발견된 것이라 하겠다.

實學派는 利用厚生이라던가 經世致用이라던가 하는 그들의 目標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實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서양의 近代 技術과는 비교할 바 못된다 하더라도 괄목할만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건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實學派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고, 실학의 융성기인 正祖代에 이르러 國家의 大事業인 水原城을 築城하므로 해서 實學派의 建築思想은 정리를 보게 되었다.

實學建築思想이 傳統思想과 近代思想과의 교량적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傳統사상 가운데서 발아하여 近代指向에의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은 現代建築이 傳統의 開發을 더욱 절실히 요구함과 더불어, 再評價할 때가 온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現代建築에 있어 傳統思想의 역할과 우리의 傳統思想에서 萌芽한 實學派의 건축사상을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문제의 전개상 建築家가 추구하는 建築과 建築家가 자신의 내부에서 소화해야 할 建築思想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여 보자.

第 2 節 建築과 建築思想

第 1 項 建築의 形而上學的本質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建築의 本質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된다. 건축의 본질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는 관념적 思考의 소산인 形而上學의 본질과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을 考察하여 얻어진 形而下學의 본질이다. 이것들을 다음에 各各 項을 나누어서 이야기 하기로 한다.

建築의 形而上學의 本質은 건축의 관념적인 부분만을 抽象해서 思考를 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얻은 것이다.

건축은 인간이 사람이기 이전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하여 온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다.

사람의 생활이 먼저 있었고, 그 생활욕구의 일부로서 건축은 발생하였다. 생활의 욕구는 기능으로서 건축의 내부를 형성하였다.

인간생활의 기능은 넷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살아야 하고」, 「일하고」, 「휴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상호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들은 인간 생활의 욕구의 일부로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인간성의 존중」이라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선행한다. 여기서 건축의 내부를 형성하는 인간 생활의 기능을 「살아야 한다」는 말로써 종합하여 표현한다면 건축의 形而上學의 本質은, 먼저 「산다」(住)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다음은 인간성의 존중이라는 선행적 요구가 만족되어야 하겠다.

건축은 사람이 「산다」는 기능을 가지는 때부터 건축이라 하기 때문에, 건축의 발전적 변천이란 「인간성의 존중」이라는 선행적 요구의 만족 程度로써 표현된다.

건축에 있어 「인간성의 존중」이란 두가지 방향에서 추구된다.

하나는 空間性的의 문제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건축의 내부공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간성은 존중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다른 하나는 裝飾性이다. 공간이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장식의 多少는 「인간성의 존중」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때 공간성은 장식성보다 優位의 자리를 차지한다. 내부공간의 크기는 사회적 생산력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사회적 생산력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내부공간은 갑자기 확장된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력이 생산기술과 관계를 갖기 때문이고, 어떤 생산기술은 한정된 내부공간 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공간이 일정한 한계에서 정체하게 되면 점진적인 생산력의 발전은 주로 장식에 경주된다. 그러나 일단 내부공간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장식은 경시되어진다. 이렇게 공간성과 장식성은 상호 대립하면서 순환한다.

이것은 장식 위주의 「로코코」, 「바로크」양식이 産業革命의 결과로 탄생한 「近代建築」에 의해서 「장식은 죄악이다」라는 말로써 무시되었다가 다시 「現代建築」의 조류가 「장식의 우위」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고찰해 볼 때, 스스로 증명이 된다.

建築의 形而上學의 本質은, 「산다(住)」는 기본적 기능을 바탕으로 「인간성의 존중」의 深度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인간성의 존중」은 공간성과 장식성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때 공간성은 장식성의 우위를 차지하며, 이것들은 상호 대립하면서 순환한다.

第2項 建築의 形而下學의 本質

建築의 形而下學의 本質은, 건축을 材料나 構造方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形態를 가진 可視

的 存在 즉 物的 存在로서 인식하여 고찰한 것이다.

物的 存在로서의 건축은 한편으로 사회적 生産物에 의해서 한정되는 사회적 生産物로서 社會的 制約을 받게 된다. 이것은 社會的 構造 技術이나 材料의 生産能力 또는 造立能力 - 이러한 것을 통털어 社會的 生産力이라 한다. - 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내부 공간이 한정됨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서울 시민은 고구려시대의 백성보다도 훨씬 人間的인 建築 - 空間性과 裝飾性이 훨씬 우위인 공간 - 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社會의 한정된 生産力로 말미암아 어느 한정된 공간 이상은 창조하기 힘이 들었기 때문이고 서울의 시민은 生産力の 발전으로 고구려의 백성보다 훨씬 나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건축은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 건축 또한 발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은 그것의 材料로서 自然的 物質을 사용하여 自然的 制約을 받는다. 이것은 어떠한 한정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적 재료에 따라 제약을 받음을 말한다. 「회탑」과 「로마」에서는 대리석이 量産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石造 建築이 誕生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많고 화강암이 量産되므로 木造를 主軸으로 한 石造의 造營物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와같이 건축은 사회적 제약과 함께 자연적 제약을 받는 것이다.

또 한편 인류의 지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은 건축재료로서 자연적인 흙, 나무,

돌등의 一次産品이 아니고, 人工을 加味한 벽돌, 시멘트, 철 등의 二次産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人間에 대한 자연적 제약이 점차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건축」과 「사회적 제약」 및 「자연적 제약」은 삼각 관계를 이루는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건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연적 제약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감소하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증대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연적 제약에 비해서 사회적 제약의 영향이 증대함을 말한다. 이것이 건축의 形而下學的本質이다.

이 법칙은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연과 건축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다른 사회의 단계에 따라 각각의 다른 건축 법칙이 지배한다.

예를 들면, 근대의 産業資本主義의 성숙기에 나타난 강력한 자본의 축적의 요구는 「프로테스탄티즘」의 禁欲主義로 표현되었고, 근대건축에 있어서 기본을 이루는 機能主義와 無裝飾主義는 禁欲主義에서 발생한 것이다.

第3項 建築分科學을 통제하는 建築思想

앞에서 이야기한 건축의 본질을 건축가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건축에 대한 의식은 존재하고 이것을 건축사상이라 한다. 이때 물론 건축가의 의식은 그의 사회적 制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한 건축사상은 건축에 고유한 精神이 표현된다고 할 때

이 정신을 말하나, 어떠한 시대도 고유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고 건축사상은 그 시대정신의 소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産業資本主義 時代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禁欲主義라는 고유한 시대정신으로 대표되고, 이것은 「기능주의」라는 건축사상을 낳았다.

이렇게 건축 행위의 정신적 배경을 건축사상이라 하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우리는 건축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건축 哲學이라 부르며 건축 철학은 모든 建築分科學을 통제하고 종합하는 학문으로 건축분과학에 공통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는 건축가는 건축 사상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인간의 장래를 계획하기 시작한 현대에 이르러 더욱 학문의 대상으로 필요해졌다. 더구나 건축은 건축의 分科學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이때, 이것을 상호 연결 및 통제하는 건축사상의 연구는 보다 절실했다.

건축사상은 이렇게 현대건축에 있어 절실한 요구로 등장하고, 현대건축의 건축사상을 계획함에 있어 傳統的 건축사상은 중요한 經驗的 요소로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현대건축사상은 전통의 계승적 발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實學派의 건축사상은 전통 건축사상에서 萌芽하여 近代指向의 몸부림을 하므로서 전통 사상과는 별개의 배경에서 교육을 받아 온 우리에게는 절실한 요구로 등장하였다.

이제 서양의 근대정신을 빌어 우리 전통사상의 계승자인 實學 建築思想을 비판적으로 받아 들

임으로써, 전통사상을 계승하여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축사상을 전통사상의 토양에 뿌리 박고, 근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설명하고 이해하며 비판하여, 세계 현대건축의 새로운 한국의 「장르」를 마련할 때가 온 것이다.

第二章 實學의 歷史的 背景

第1節 實學의 社會的 背景

「官僚의 集權 封建制」라고 지칭되는 朝鮮은 임진·병자호란 이후, 公田의 광범한 隱結化, 봉건적 官僚支配의 機構의 矛盾, 官紀의 해이와 官僚에 의한 中間收奪의 增大 등의 모순으로 차츰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상공업의 발전」과 「중세적 신분」의 동요가 일기 시작하고 「서민예술」이 대두한다.

(1) 商工業의 발전

肅宗代(1708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大同法은 그 목적이 朝廷의 재정 확보이었으나 이 稅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공업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첫째는 大同法이 交換經濟를 전제로 하였지만, 逆으로 이 세법이 교환경제를 촉진하였다. 이 세법의 시행 이후에 화폐의 실질적, 전국적 통용은 가능하였다.

둘째는 大同法이 전국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종래는 봉건 朝廷이 자기 수요를 「謠貢의 형태」로 직접 收取해 가던 것을 「購買의 형태」로 조달하게 되고 그 조달자로 貢人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官營手工業은 쇠퇴하게 되고, 농민의 謠貢도 대체로 폐지되었다. 官에서 일이 있으면 私匠을 돈을 주고 채용하였다. 이렇게 생산력 발전의 기점이 封建 朝廷에서 手工業者와 농민의 경영으로 이행되어 갔다.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되자 (肅宗 4年) 사용가치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교역의 장소로서 시장이 발달하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엽에는 도시 뿐만이 아니라 지방시장에까지 전국적인 市場圈이 형성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전통적 특권상인인 市廛의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고, 官權과 결탁한 富商들의 亂塵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亂塵 商人 속에서 都買와 같은 상업 資本家가 출현하였다.

私營 治匠 工業者들이 外方 鐵鑛으로부터 직접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팔아 이익을 본다. 이것은 종래의 「工則造商則売」라는 낡은 특권적 독점 상업관념을 타파하게 되고 수공업자가 상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國際貿易의 융성은 서울의 特權商을 붕괴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것에 의한 상업자본의 축적도 막대하였다.

이렇게 17세기에서 18세기에 들어 오면서 상품화폐경제가 상당히 발전하여 전국적 시장 형성의 요청이 일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따라 商業地理, 交通地理의 지식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捭里志」는 財化와 수록운수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고, 鄭尚驥의 「東國地圖」는 정확한 거리의 計定과, 수록 교통로의 표시, 그리고 「道里表」에 있어서 시장의記

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中世의 身分의 等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하나의 고정된 社會身分에서 上級身分으로 상승해 가는 것은 制度上으로 인정되었으며, 그것은 經濟的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신분 등요는 임진란 후에 급속도로 진행하였고, 孝宗 이후에 단행되는 戶籍制度의 재정비로 인하여 위축되었으나 英正祖 이후에는 보다 더 왕성하게 그 변동이 재현된다.

1778年(正祖 2年)에 奴婢推刷法을 폐지하였다던가, 1801年(純祖 元年)에 奴婢의 文書를 소각한 것 등은 노예해방을 제도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서양의 農奴에 해당하는 外居奴婢 이므로 農奴의 해방을 뜻하기도 하였다.

朝鮮王朝의 봉건적 사회가 奴婢와 농업노동력의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와같은 身分關係의 격동은 봉건 사회의 붕괴를 웅변하고 있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사회구성은 이와같이 富農과 賤階級의 상승으로 인하여 점차 내부적으로 변화되어 갔다.

(3) 庶民藝術의 대두

이 시기에 있어서 庶民藝術의 진출도 괄목할만하다.

漢文學에서 委巷詩人들은 양반 귀족층과 전통적인 科文에만 얽매인 사람들의 형식화된 문학에서부터 자기의 발전을 하게 되고 다시 사회에 대하여 諧謔的

인 자기의 울분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벌써 1660년대(顯宗代)부터 共同詩集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특히 國文學에 있어서 18세기 이래로 小說, 時調, 歌辭 및 唱劇의 분야에서 중세 兩班文學은 불가피하게 우리 國文學史의 무대 정면에서 물러나고, 平民文壇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유식한 광대들이 그들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가장 민족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說話에서 취재하여, 民族文學의 특질이 가장 잘 표현되었는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 문학을 형성시켰다. 이렇게 18세기 후반기의 문학계는 각 분야에서 민족적인 독창성을 나타내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정상적인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회화에 있어서도 독창적이면서 서민적인 畫風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선 초에는 山水畫나 肖像畫를 주로 하되, 그것도 중국 畫風을 모방하기 일수이던 것이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같은 山水를 그리더라도 한국적인 情趣가 넘쳐 흘렀다.

18세기 후반기 이래 한국사회 경제 내부에서는 여러면에서 근대화의 요인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봉건지주층에서의 농업경영자의 발생, 봉건소작농민에서의 自營農民의 성장, 유통 과정에서 화폐적 요소의 증대, 官營工業의 쇠퇴와 더불어 獨立 自營 匠人의 출현 등의 현상은 확실히 근대화의 제징조라 할 수 있다.

第 2 節 實學의 發展

17-8세기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實學이 발생 성장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思想史·文化史의인 면에서 볼때 전 통사회 자체내에서 싹 틔우면서도, 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1) 草創期<(宣祖~光海君) (17C 초)>

金堉을 대표로 하는 實學으로 임진·병자의 兩亂 후 악화된 봉건국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金堉은 「大同法」과 「鑄錢行用」에 관해 가장 두드러진 건의를 하였다. 大同法은 그 자체가 혁신적 세법이었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교환경제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2) 發展期<(仁祖~景宗)·(17C 중엽~18C 중엽)>

柳馨遠에서 李翼에 이르는 시기의 실학이다. 이때의 실학파는 國富가 농업에 있다고 설파하고, 적극적으로 농업 생산력에 역점을 둔다.

礪溪의 토지정책은 均田制이었다. 그는 농민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주고 다음에 국가는 稅穀과 兵役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상공업 장려를 주장하였다.

星湖는 토지문제에 관해서 限田論을 주장한다. 즉 일정한 면적의 토지는 농민의 영구 保有地로 설정하고, 매도 혹은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隆盛期<英祖~正祖, 18C 말엽~19C 중엽>

朴齊家, 丁若鏞에 이르는 시기의 실학이다.

상공업을 장려하며 각종 기술 혁신을 강조한다.

茶山의 토지 정책은 闢田制이었다. 모든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여 농업 생산력에 역점을 둔다. 또 화폐의 폐해는 私鑄錢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私鑄惡錢을 방지하여 화폐의 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楚亭은 상공업도 중요한 생산 행위라 하여 국가 경제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 수공업에 있어서도 재화의 샘이라 하여 적극적 진흥을 주장하였다.

(4) 轉換期 純祖이후, 19C 말엽이후>

開港 이후의 실학이다.

실학 사상은 19세기 초 丁若鏞, 朴齊家, 崔漢綺 등의 학자들로 그 계보가 단절되었는데, 개항 이후 개화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연 단절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역시 이것은 전통사상을 계승해 보겠다는 우리들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러한 실학의 발생 요소로는,

첫째, 임진왜란 이후 봉건주의가 붕괴해 가는 社會 內在的 요인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에 발맞추어 봉건 정부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정책과 농업정책의 출현이다. 봉건 정부의 체질개선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실학도 강력한 정책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세째, 朱子學에 대한 儒學의 內在的 비판이다.

네째, 燕京을 통한 서구문화와 중국문화의 유입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학은 성립하였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第3節 實學 建築思想의 形成

실학사상은 經世安民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利用厚生에서 완성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하부구조가 성숙한 다음에 상부구조가 구축되는 당연한 이치이다. 서구의 경우, 18세기 말에 시작했던 산업혁명이 신제로 근대적 건축사상에까지 파급되기에는 거의 1세기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경우 조선의 폐쇄적인 사회를 고려에 넣는다면 거의 2세기가 걸렸다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부구조인 건축사상은 발전기와 융성기에 이르러서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발전기와 융성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실학파의 건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실학파의 건축사상을 著書別로 나누어 차례차례 소개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현상 하나 하나에 대한 건축이론을 종합해서 어떠한 思想으로 모아 보는 방법이다. 전자는 읽는 사람에게 알기 쉬운 점이 있으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위우나 독자로서 하여금 실학파의 건축이론에 대한 소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학파

의 건축사상의 본질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실학 건축사상은 어떠한 사상으로 모아 볼 수 있는지 실학적 측면과 건축적 측면에서 살펴 보자.

실학사상을 몇가지로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시대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우세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봉건적 사상.

둘째, 민족의 保全을 위해 傳統的으로 지녀온 민족적사상.

세째, 근대화라는 사회 內在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近代指向의 사상.

특히 「둘째」와 「세째」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實學思想이 後人の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건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적제약과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등의 다른 나라와 자연적제약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은 독특한 風土에 맞는 樣式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제약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역사발전의 일환으로 時代에 따라 다른 樣式을 낳게 된다.

조선 후기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 가는 전환기에서 있었고, 따라서 실학 건축사상은 봉건적 건축사상과 근대 지향적 건축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은 자기의 보존 수단으로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적 제약을 받는

것을 민족적 건축사상이라 한다.

실학적 측면과 건축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實學 建築思想은 封建的, 民族的,

近代指向의 建築思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사상은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본 것이요, 한 건축사상이 동시에 두 가지 사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第三章 實學派의 建築思想

第1節 封建的 建築思想

第1項 小 序

봉건적 건축사상은 시대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 잔존하여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던 건축사상이다. 이것을 그 방법에 있어서 근대 정신과는 부합되지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적 건축 행위를 위하여 先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의 내용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첫째, 非實驗的 사상이다.

한국의 自然科學과 기술은 이론적 연구와 原理的 과학보다도 經驗的 연구를 重視한 결과로 기술은 應用科學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기술자들은 下級官吏로서 匠人으로 賤視되었다.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여유를 누릴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과 口傳에 의해서 얻은 秘法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朝鮮 後期 實學派도 크게 넘어서지 못한 장벽이었다. 그들의 著書는 다분히 非實驗的인 주장과 문헌의 집성과 열거에 끝난 것 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土俗의 사상이다.

土俗신앙 위에 성립한 건축사상으로 先驅的 요소를 神託에 붙여서 비합리적 건축행위를 규제하던 건축사상이다. 이것은, 원래 神에게 인간의 복을 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呪述의 요소만 가지고 행해지는 것도 있었다.

第2項 非實驗的 思想

(1) 防禦의 사상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적 사상으로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설명하면

첫째, 은둔적 생각이다.

대문이 길에 면하여 있음을 싫어한다. 더우기 교차로에 門이 나 있거나, 四路가 집을 에워싸고 있거나, 하는 것을 不吉하다하여 싫어하였다. 다만 한길에서 막힌 골목으로 들어선 다음 막다른 골목에 문이 나 있어야 좋다고 하였다. 이 막힌 골목은 부자인 경우 긴것을 좋아하였다.

이것은 通過交通을 머무르게 하지 않으려는, 방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멋을 사랑하는 道敎的 은둔사상에 의한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단, 이것은 交換經濟가 발달하지 않은 封建的 자급자족 시대의 유산인 것만은 확실하다.

둘째, 招人間的인 힘에 의존하려는 생각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華城에서 「戰棚」이라는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다. 「戰棚」이란 敵 쪽에 鬼面을 그리고, 적당한 곳에 구멍을 뚫어 화살을 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敵으로 하여금, 鬼面에서 갑자기 쏘아져 나온 화살의 힘을 빌어, 공포심을 이르게 하자는 뜻인듯 하다.